

사회 >> 3면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

기획 >> 4면
 활기를 되찾은 대학가 상권

현장르포 >> 5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문화장소

제562호
 2022년 7월 18일(월)

서경대 사회봉사단, '사랑 나눔 봄 김장' 행사로 2년 만에 온정 나눠



지난 5월 21일 서경대학교 사회봉사단 사회봉사단은 김음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한 '사랑 나눔 봄 김장' 행사를 통해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반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가정 등 총 80가정에 봄 김장을 전달했다.

이번 '사랑 나눔 봄 김장' 행사는 겨울철 김장이 모두 떨어질 시기에 김장을 전달함으로써 지역 내 요보호 가구의 가계 부담을 덜어내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지난 5월 10일 교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국내봉사단원 모집 공고 등을 통해 모집된 단원 중 총 14명의 학우가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했던 5월, 김음종합사회복지관에 모인 다양한 학과의 봉사단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에 걸쳐 진행된 김장 행사에 시종일관 즐거운 분위기로 참여했다.

이날 오전 복지관 지하층 경로식당에 모인 사회봉사단원 및 관계자는 복지관 담당자의 일침 안내를 들

고 김장을 진행했다. 3개 조로 나눈 뒤 우비와 위생모자, 앞치마, 고무장갑 등 김장을 위한 복장 착용을 마친 이들은 복지관 측에서 준비해 둔 절임배추와 양념장 등의 재료를 배분받아 본격적인 김장에 나섰다. 각 조는 양념으로 배추를 버무리는 인원과 그들을 보조하며 완성된 김치를 봉투에 옮겨 담는 인원으로 역할 분담해 저마다의 김장 솜씨를 뽐냈다. 그렇게 이들은 약 3시간동안 일사불란하게 김장을 진행한 끝에 500여 포기의 김치를 모두 완성했고 전달을 위한 박스 포장 또한 마쳤다.

뒷정리를 끝내고 복지관 앞에 모인 봉사단은 기념사진 촬영 후 거동 불편 당사자 20가정을 위한 김치 배달을 진행했다. 각 조별로 대여섯 가정을 맡아 포장된 김치를 들고 방문했고, 김치를 전달 받은 어르신들은 봉사단원을 반기며 "마침 김치가 딱 떨어졌었는데 반갑다"며 "어린 학생들이 직접 와주니 참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렇게 20가정

에 배달을 모두 마치고 복지관으로 돌아온 단원들은 다함께 식사를 한 뒤 행사를 종료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단원들을 통솔한 서경대 사회봉사단장 이윤재(화공 18)학우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사회봉사단 활동이 다시 재개되어 기쁘다"며 "이번 봄 김장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분들께 도움이 되어 뿌듯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봉사에 열심히 참여해 준 사회봉사단 단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봉사에 참여한 현 지희(경영 20)학우는 "평소 체험하지 못했던 김장을 봉사활동을 통해 경험하니 뜻 깊었다"며 "사회봉사단 단원들과 함께해 더욱 즐거운 활동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지난 활동하지 못했던 서경대 사회봉사단이 약 2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 뜻 깊은 행사이기도 하다. 서경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 사회봉사단은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김음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행사, 어버이날 행사, 복날 행사 등 지역주민 식생활 및 정서 지원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왔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활동이 제한되며 김음종합사회복지관과의 사회공헌 협력 행사를 약 2년 간 중단해야 했지만, 올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활동을 재개함으로써 나눔공헌체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됐다.

한편 서경대 사회봉사단은 이번 봄 김장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플로깅' 과 복날 삼계탕 나눔 행사 등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영은 기자
 (0eunee@skuniv.ac.kr)

진로심리상담센터 '찾아가는 마음 건강 캠페인' 성황리에 마무리



서경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일상회복' 마음 건강 캠페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는 대학혁신지업사업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의 활기찬 캠퍼스 생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5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북악관 앞 부스에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전문가와와의 1:1 심리 상담 ▲스트레스 심리측정 ▲야외 체험 활동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이번 활동에선 자신의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전문가와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더 나아가 체험 구역에는 '스트레스 나무'를 설치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적어 붙이도록 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로 지친 마음의 활기를 유도하며 마음 돌봄의 필요성을 알렸다.

행사에 참여한 전자공학과 4학년 남근민 학생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모여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며 행사에 참가한 소감을 밝혔다.

진로심리상담센터 센터장 민미희 교수는 "앞으로는 매학기 마음건강

캠페인을 실시해 마음돌봄의 필요성을 알리고 각자의 심리적 문제에 대해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교감하겠다"고 말했다.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선 일상생활 속 겪는 어려움과 고민에 대한 상담 및 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일	일	장	내용
7. 18(월) ~ 7. 22(금)			농촌봉사활동
7. 18(월) ~ 7. 29(금)			휴학, 복학, 재입학 신청
8. 16(화) ~ 8. 19(금)			2학기 수강신청
8. 18(목)			제72회 후기 학위수여일
9. 1(목)			2학기 개강



리모델링한 ID Lab실 모습

핵심역량 교양필수 5가지 과목, 2학기부터 명칭 변경돼

No	역량구분	기존교과목	학점
1	창의역량	상상력예의 초대	2학점
2	문제해결역량	문제해결의 힘	2학점
3	대인관계역량	홀리스틱리더십	2학점
4	자기계발역량	내인생의성공학실패학	2학점
5	실무역량	직무리하설	2학점
6			

변경교과목	학점
MZ세대창의력	2학점
MZ세대문제해결	2학점
MZ세대대인관계	2학점
MZ세대자기계발	2학점
MZ세대법이야기	1학점
MZ세대글쓰기와토론	1학점

창의역량, 문제해결역량, 대인관계역량 등 지도적 인재가 되기 위해 필수로 수강하는 '핵심역량 교양필수' 과목 5가지의 명칭이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변경될 예정이며 변경안은 다음과 같다. ▲상상력예의 초대→MZ세대 창의력 ▲문제해결의 힘→MZ세대 문제해결 ▲홀리스틱리더십→MZ세대 대인관계 ▲내 인생의 성공학·실패학→MZ세대 자기계발 ▲직무리하설→MZ세대

법이야기, MZ세대 글쓰기와 토론 특히 직무리하설 강의의 경우 기존 2학점에서 2가지로 강의가 나뉘며 각 1학점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신규 수강자의 경우 MZ세대 법이야기와 MZ세대 글쓰기와 토론 2가지 강의를 모두 수강해야 한다. 재수강의 경우,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자까지 2학기 강의 중 1개를 선택해서 대체재수강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체재

수강 시 기존 2학점에서 1학점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총 졸업학점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기초 학문 교양 선택' 과목 중 이공대학이 선수강하는 대학수학1, 대학수학2 강의도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변경안은 다음과 같다. ▲대학수학1→AdvancedCalculus1 ▲대학수학2→AdvancedCalculus2 이렇듯 서경대학교는 4차 산업혁

명에 맞서 미래 경쟁력을 갖춘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실용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현재 1학년으로 재학중인 박세훈(경영 22) 학우는 "이번 학기에 내 인생의 성공학·실패학과 직무리하설을 이미 수강했는데, 다음 학기부터 명칭이 변경된다고 하니 조금 당황스럽다"며 "하지만 학교의 변경의도를 파악하고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확인하니 나에게 꼭 필요한 학점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된다"는 기대 소감을 밝혔다.

홍지완 기자 (skwdhks9751@skuniv.ac.kr)

영화영상학과의 '열정 어린 시사회' 관객들에게 선보여



지난 6월 17일, 서경대 디자인학부 영화영상학과 학생들의 제32회 단편영화 제작 발표회 'Premiere Of Passion' (이하 POP)이 아리랑 시네센터 3관 독립영화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POP 행사는 2년 만에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되면서 다시 대면으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날은 서경대 학생들뿐만이 아닌 여러 사람들로 가득 찬 관객석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POP은 초연을 뜻하는 'premier'와 열정을 뜻하는 'passion'의 합성어로 '열정 어린 시사회'를 뜻한다. 영화영상학과 학생들의 영화제작실습 수업을 통해 만들어진 단편영화들 중 경쟁을 통해 선정된 작품들을 상영하고 시상상을 통해 학생들의 의욕을 고취하는 영화영상학과 전통적인 행사이다. 상영 후에는 시상에 관객들이 참여하는 관객상 투표 및 각 작품의 감독들이 직접 자신의 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관객들과 질의응답 할 수 있는 CV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제32회 POP에서 상영된 작품은 ▲백킹 마이카 ▲하우스 오브 마우스 ▲뽕뽕 너머 ▲엄니 ▲하와이에 도 겨울은 있다 ▲죽어도 축제로의

총 6 작품으로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선보였다. 특히 '죽어도 축제로' 작품은 섬세한 감정선과 뛰어난 연출로 주목받으며 관객상과 촬영상, 대상상을 모두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제32회 POP을 총괄한 서동준 영화영상학과 정 학생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대면 행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감회가 새롭다"며 "다시 한번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또한 "12월 16일로 예정되어있는 2학기 POP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원준 수습기자 (2022464017@skuniv.ac.kr)

웰메이드 블랙 코미디, '못생긴 남자' 성황리 마무리



서경대학교 공연예술학부 학생들의 정기공연 '못생긴 남자'가 6월 2일(목)부터 6월 4일(토)까지 3일간 교내 북악관 스튜디오 810에서 개최됐다. 공연 '못생긴 남자'는 2022

년 통합형 공연예술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작품으로, 서경대학교 공연예술학부가 펼치는 네 번째 정기공연이었다.

'못생긴 남자'는 독일의 동시대적 작가 마리우스 폰 마이엔부르크의 대표작으로, 현대사회의 외모중심적인 사고와 개인의 자아정체성 상실 및 주체성을 주제로 한 블랙 코미디다. 포스트 서사극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작품은 세계적인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25개 국어로 번역 및 공연되고 있다. 극중 주인공 '레테'는 자신이 개발한 프로젝트의 프레젠테이션을 부하 직원에게 뺏기게 된다. 그 이유가 자신의 못생긴 외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레테'의 아내 또한 그가 못생겼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외모 때문에 자신이 이룬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뺏기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마저 자신

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레테'는 얼굴을 바꾸고자 성형 수술을 결심하게 된다. 수술이 끝나고 봉대를 푼 '레테'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후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겪는 정체성의 위기와 현대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공연 속에서 흥미진진하게 그려낸다.

본 공연의 연출을 맡은 심다하 학생은 "항상 연출자로서 가지는 마음가짐은 '재미있는 공연을 하자'는 것"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또한 "공연이 가지는 즉흥성이라는 특성만큼 언제나 변수가 가득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기에 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마냥 재미있을 수도 항상 쉽고 순조롭게 갈 수도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학부 학생들은

이 일이 즐겁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재미있는 공연을 하자는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서경대학교 공연예술학부의 학생들은 코로나 시대를 끝내고 대면 관람을 위해 여러 정기공연을 준비하며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 관객이 있는 기쁨에 감사로 느끼고,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낀 1학기 정기공연이었다. 학생들은 통합형 공연예술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될 앞으로의 다른 공연들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했다.

류상근 수습기자 (tg34567@skuniv.ac.kr)

서경대 모델연기전공, 제6회 정기사진전 개최

서경대학교 모델연기전공은 지난 6월 10일, 11일 이틀간 서울 종로구 소재 서경대 공연예술센터에서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라는 주제로 제6회 정기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로 인해 평소 익숙하기만 했던 것들이 또는 하고자 했던 것들이 사라져 버린 지금, 다시 회복될 그 날을 기다리며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자 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진전은 ▲nature ▲my truck ▲balck&white ▲백색소울 ▲true colors ▲tales by moonlight ▲long will i love you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바람이 지나가는 길 ▲call me cruella ▲get the party started ▲love you different ▲jekyll and hyde 등 총 13개의 색선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각기 다른 매력으로 관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주제별로 알맞게 전시된 사진들은 국내 최고의 모델

명문다운 창의력과 작품성, 존재감을 확인시켜 줬다.

사진 속 모델들의 다양한 표정과 포즈, 밝음에서 어두움까지 이분법적인 요소로 담아낸 주제 의식이 드러난 작품들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강렬한 인상을 남겨줬다. 특히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학생들의 노력은 여러 번 되새겨볼 만한 공감을 담고 있다. 서경대 모델연기전공 학우들은 이번 사진전을 준비하면서 전시 이후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팜플렛 대신 큐알 코드를 활용해 사진 작품을 소개했다. 이러한 점이 다른 전시전과는 다른 관람 포인트로 다가온다.

사진전은 슈퍼모델 김태연 교수가 지도하는 통합공연예술프로젝트 수업의 일환으로 윤태호, 강연호, 김승현, 문지환, 박세별, 변서우, 박유준, 오지현, 이건희, 전주

호, 조채원, 강민영, 김유진, 조예원, 최이재, 기현우, 김민아, 김동욱, 김민서, 김현서, 박정연, 손은수, 심어진별, 오수미, 이서준, 이하늘, 이현진, 조정빈, 최은지, 김도연, 김소윤, 김민지 등 32명의 모델이 참여했다.

김태연 교수는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전시회는 학생들 스스로 기획, 제작하고 전시 홍보까지하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델연기전공 학생들의 손길이 묻어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제작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사진전입니다. 마음껏 즐기세요'라고 고맙고 싶습니다"고 밝혔다.

이종은 기자 (20eun00@naver.com)

서경대 무용예술학부, 한국무용전공 창작발표회 및 쇼케이스와 실용무용전공 정기발표회 열려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 교내 문예관 1층 문예홀에서는 서경대학교 무용예술학부 한국무용전공의 '제19회 창작발표회 및 제22회 한국무용 쇼케이스'가 열렸다. 발표회 및 쇼케이스는 1, 2, 3학년 학생들의 단체 작품 5편과 4학년 학생들의 단체 창작 작품 2편으로 구성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무용예술학부 학생들과 더불어 공연예술학부 무대기술(조명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협업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무용예술학부 한국무용 전공 학생들이 작품을 기획했을 뿐만 아니라 안무, 의상, 소품 등을 직접 제작하여 정성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월 28일 오후 6시에는 문예홀에서 실용무용전공의 정기발표회 'SDC IN SUMMER'가 개최됐다. 이날 공연에는 실용무용전공의 모든 학년이 참여하여 총 15편의 작품을 선보였다. 무대는 알앤비, 왁킹, 합합, 팜핑, 락킹, 코레오와 더불어 비보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

의 춤으로 구성됐다.

실용무용전공의 정기발표회 역시 조명은 공연예술학부의 무대기술전공 학생들이 담당했다. 또한 헤어와 메이크업에 미용예술대학 학생들이 참여하여 공연의 퀄리티를 한층 더 높였다.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최선을 다

해 준비한 무대는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앞으로의 무대에 대한 흥미와 기대를 한껏 불러일으켰다.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한 눈에 보는 이슈

<h3>경제</h3> <p>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실질적 물가안정 효과 있을까?</p>	<h3>사회</h3> <p>'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 재심 무죄 날까요?</p>	<h3>정치</h3> <p>윤 대통령, 전국지표조사 첫 데크로 스... "독단·무능" 꼽혀</p>	<h3>문화</h3> <p>퀴어·장애인... 대중문화 전면에 나선 소수자들</p>	<h3>연예</h3> <p>남주혁, 학폭 이어 '카톡 감옥' 의혹... 소속사 "강경 대응할 것"</p>	<h3>스포츠</h3> <p>배구 여제의 귀환... 김연경 "남은 배구인생은 한국에서!"</p>
--	---	--	---	--	---

※ 자세한 내용은 사회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는 이슈

尹 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떨쩍 댄 물가 잡을 수 있을까?

지난달 30일 새 정부에 들어선 기획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먹거리,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생활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주거안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생활 밥상물가 안정으로 수입입자가 절감, 식료품비 인하와 식재료비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등 수입품 원가 상승에 대한 압력을 완화한다. 식용유, 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을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고 할당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교통,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과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보유세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래세 완화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금융접근성을 위해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70%에서 80%까지 상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중 커피와 코코아원두 수입에 불는 부가가치세가 내년까지 한시

면제된다고 한다. 정부는 커피 원두의 원가가 9.1%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 강북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윤진희(가명·50세)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영업자 인터뷰] - 윤진희(가명·50세)/개인 카페 운영

Q. 커피와 코코아원두 수입에 불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한 음료 가격의 변화가 있습니까? 물가 상승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데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생두는 면세입니다만 원두를 수입할 때 30kg에 12만 5천원에서 25만원으로 100%나 올랐습니다. 또한 밀가루 뿐만 아니라 과일 등 식재료의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일반 음료에 들어가는 부재료들도 가격이 상승해서 카페를 운영하는 데 메뉴의 가격을 올리는 게 불가피했습니다. 매장에서 완제품을 사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안 오르게 없습니다.

Q.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의 커피, 코코아원두 부가가치세 면세가 실질적으로 카페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커피를 직수입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인을 통해 수입하다 보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이미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더 인상되는 것도 없어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실제로 얼마나 체감되십니까?

금리는 대출을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물가는 엄청 올라서 생활과 가게 운영 모두 힘이 듭니다. 장보는 데 드는 소비도 줄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거리두기가 완화된 데다가 제일 장사가 잘되는 여름임에도 카페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카페에서 직접 로스팅을 하면서도 2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아메리카노를 판매하고 있는 율씨에게 물가 상승은 더욱 크게 와 닿았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보이는 요즘,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된 지 약 3주 만에 발표한 야심찬 대책으로 과연 물가가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요? 윤창호법을 둘러싼 말말말..

윤창호씨는 카투사에서 복무 중 인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군 휴가 있던 그는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으로 음주 운전자 처벌 기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그 결과 음주운전 처벌 및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제정됐다. 윤창호법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법이다.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면 징역에 처해진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째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일부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창호법을 부정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입법 절차가 감정적으로 이뤄졌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입법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를 '음주 운전 공화국'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창호법을 둘러싼 뜨거운 법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현 사회를 살고 있는 20대 청년에게 윤창호법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일반인 인터뷰] - 이민지(가명·26세)/취업준비생

Q. 윤창호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다. 대부분의 음주운전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잠재적 살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처벌받는 세상이도 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창호 법과 같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이 많이 생겨나야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윤창호법이 두 번째 위헌 판정을 받으셨습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위헌 판정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법안을 위헌 처리하는데 있어 재판에 관한 시간적 제한을 가장 큰 이유

로 들었습니다. 이에 관한 미약한 판결에 많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Q.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판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미약한 처벌이 계속되는 것이 음주운전의 재발율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나라 중국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즉시 형사재판으로 넘겨진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판결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강력한 처벌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질서 있는 운전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북한 의약품 공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 청정지역임을 강조해왔던 북한이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확진자가 대거 발생 중임을 알렸다. 북한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확진자 수는 지난 5월 15일 39만 2천 920여 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만 명 대를 유지하다 5월 말부터는 10만 명 안팎을 오가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는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북한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나 열어놓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고 북한에 대한 의약품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불거졌다. 인도적 차원에서 의약품을 공여하는 의견과 부작용 및 책임소재 등을 이유로 공여를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 중인 상황이다.

의약품 지원에 찬성하는 측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같은 민족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며 북한주민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지 못했고 기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면역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점과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의약품 지원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견해와 국내 백신 잔여량이 많으니 폐기량을 줄이는 차원에서 공여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백신 잔여량은 6월 15일 기준 약 2000만 회분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의약품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은 국내 잔여 백신을 북한에 공여했다가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나타날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이미 국제사회가 내린 도움의 손길을 여러 번 거절하며 지원 요청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같은 위험 행위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백신을 지원하는 것은 안보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며 "지원한 의약품이 고위층에게만 돌아가고 어린이나 노인도 같이 백신 공급이 시급한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오미크론 영향으로 지난 2~4월 의약품 품귀현상이 일어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정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렇듯 북한 의약품 지원 여부를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학우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영은 기자 (Oeunee@skuniv.ac.kr)
윤지예 수습기자 (jyeesunny@skuniv.ac.kr)

■ 원진영 (전자 21)

저는 북한에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원해주는 물품이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동안 많은 식량과 생활 필수용품들을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국민들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매우 가난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지원해준 자원을 북한의 통치자, 소수의 계층이 독점하고 있거나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국민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기에 지원해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북한에 지원할 의약품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원을 지원해줘도 북한의 소수계층이 독점하기에 그 돈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방관, 군대는 장비, 시설 등등 종사자들의 대우가 많이 안 좋고 특히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망가지더라도 본인의 돈으로 장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버리는 돈으로 우리나라 소방관 군 시설 등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강해산(가명) (광흥콘 22)

저는 북한 의약품 기부에 찬성합니다. 북한의 국민들이 국가 지원 부족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 때문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탈북민의 인터뷰 영상만 찾아 봐도 국민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고통 받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 탈북민들이 나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90년대에 댈친 자연재해로 수많은 국민들이 굶고 아사했던 대기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엄마가 죽어서 떡을 먹을 수 있다'며 자랑하는 아이를 봤다는 이야기와 비료로 국수를 만들어 먹었던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탈북민의 모습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북한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해 아사자들이 다수 발생했다는 기사가 발표됐습니다.

당장의 식량 부족도 문제인데 의약품은 또 어떨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혼란은 북한도 피하기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의 코로나 사망자 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후에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언제 또 사태가 심각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외교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하진 (나생공 21)

저는 북한 의약품 지원에 대해 반대합니다. 의약품은 부작용이나 약물 오남용 등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또는 북한이 아닌 다른 해외로의 의약품 지원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의약품을 지원했다면 북한 내에서 의약품 사용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곧 국가적 문제로,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 및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선뜻 북한에 지원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가 사이의 문제를 인도적 차원이나 감정적으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의약품 지원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의약품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지원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이 아닌 고위층에게 모두 돌아가거나, 또는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애초에 의약품 지원을 하게 된 인도주의적 목적은 옳고 오히려 우리를 위협할 바탕을 만들어주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보민(가명) (아동 22)

저는 북한 의약품 지원에 찬성합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치료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이 고통 받고 죽어나가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는 치료할 수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기에'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의약품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못하는 나라는 정말 많고, 우리의 이웃 나라인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북한의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고통은 북한 국민들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인과응보 형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북한 의약품 지원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수 계층이 독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외교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아닌 북한이 국외에서 지원받은 의약품까지 소수 계층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라는 형태로 북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북한과의 교류 관계가 원만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우리의 도움으로 치료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북한 국민들까지 무시하고, 싫어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마땅히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가 주변에 있다면 돕는 것이 더 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을 모른 채 돕는 것, 그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뭉개도 돕지 않는 것 자체가 방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게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위는 피하고, 감성은 쌓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문화장소 TOP4

학업에 치여 힘들었던 한 학기가 끝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찾아왔다. 대학 생활의 꽃 여름방학. 방학은 학기 중 여유가 없어 돌보지 못했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다. 온전히 나만을 위해 보내는 시간은 앞으로 나아갈 힘을 만들어 주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바쁜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피서지를 찾고 있다면 이번 현장르포 면을 주목해보자. 이번 호에서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도심 속 피서지 네 곳을 추천한다. 소개되는 네 곳은 재미와 감동 그리고 유익함까지 고려해 선정된 장소들이다. 무더운 여름밤을 로맨틱하게 만들어줄 '세빛 비어가

든'부터 볼거리가 넘쳐나는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전통의 멋이 살아있는 '청운 문학도서관'까지. 서경대 신문사 취재부 기자들이 직접 방문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믿고 즐겨봐도 좋다. 챗바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을 벗어나 즐기는 문화생활은 기쁨 속多巴도 같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메마른 내 마음 속에 문화 생활이란 단비를 내려보자. 더위는 피하고 감성은 쌓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 쬐는 여름, 서경대 신문사와 함께 문화 속으로 시원하게 풍덩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나라 고유의 멋이 살아있는 곳 청운 문학도서관

서울 도심 속, 자연과 함께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한옥 도서관이 있다. 그곳은 바로 종로구 최초의 한옥 도서관, 청운 문학도서관이다. 인왕산 언덕 아래 위치한 청운 문학도서관은 건물 사방이 나무와 녹음으로 둘

러싸여 있어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공간이다. 새가 지저귀고 나무가 흔들리며 노래하는 소리는 한옥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린다. 푸르른 소나무가 반겨주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한옥을 마주하게 된다. 청운 문학도서관의 건축물에는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숨겨져 있다. 승례문 복원에 사용된 지붕 기와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수제기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와 일부는 돈의문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

된 기와 3천여점을 재사용해 사용하고 있어 남다른 의미를 자랑한다. 도서관에 방문해 기와 속 숨겨진 의미를 살펴보자. 한옥 건물의 내부는 열람실과 창작실 그리고 세미나실로 구성되어 있다. 예정돼있는 특별한 행사가 없다면 누구나 자유로이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다. 열람실을 나와 걸음을 옮기다 보면 마당 한 켠 자리 잡은 정자를 만나 볼 수 있다. 정자 뒤편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작은 폭포가 있다. 거센 폭포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무더위 속 지친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듯하다. 정자에 앉아 창 너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멈춘 듯 평화로운 기분은 자아낸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

정자나무 앞은 언제나 폭포를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모든 건물을 둘러본 후 계단을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열람실이 나온다. 청운 문학도서관은 문학도서관으로 지정된 특성과 도서관이다. 따라서 열람실 내부에선 시·소설·수필 위주의 다양한 문학 도서를 만나 볼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선택해 한옥 열람실에서 마음의 양식을 쌓아보자. 이는 분명 마음속 깊이 숨겨진 문학적 감성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인근 주민을 위한 문학작품 기획전시와 인문학 공연, 시 창작 교실 등 다양한 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도서관 주변에는 산책로와 녹지공원 또한 잘 조성되어 있으니 이 또한 잊지 말고 방문해보길 바란다. 인왕산 자락 끝 현대적인 건물과 우리나라 고유의 멋이 공존하고 있는 청운 문학도서관, 이곳에 방문해 자연과 한옥이 어우러져 이뤄내는 아름다움을 맘껏 느껴보자.

누구나, 어디서나, 모두를 위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구에 있는 박물관으로 4호선 이촌역에서 하차하면 쉽게 찾아올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크게 상설전시관, 기획전시실, 어린이박물관, 석조물 정원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상설전시관 안에는 1층부터 3층까지 선사·고대관,

중·근대관, 서화관, 기증관, 조각·공예관, 세계문화관이 있다. 박물관 입장료는 기본적으로 무료이지만 특별 전시회 같은 경우는 표를 구매해야 감상할 수 있다. 현재 특별하게 전시하고 있는 전시회는 8월 28일까지 열리는 <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 <어느 수집가의 초대 - 고고 이진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전>과 10월까지 열리는 <빛의 향연-예산 수석사 패물>, <일본 불교조각의 세계>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은 멕시코 국립인류박물관과 네덜란드 국립세계문화박물관 등 멕시코와 유럽 11

개 박물관의 소장품과 그동안 한 번도 소개된 적 없는 새로운 발굴품을 전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박물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방문객들을 위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기획되었고 상설전시관을 해설해주는 정기 해설 프로그램은 매일 다른 시간에 따라 청취할 수 있다. 어린이박물관은 예약이나 현장 발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도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학교에서나 가족들이 단체로 방문하기 좋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큐레이터의 상세한 전시품 해설과 관람객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매우 수요 일어난 가장 시간에 즐길 수 있다. 박물관에서는 전시회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박물관 밖을 나가보면 큰 야외정원이 펼쳐져 있다. 우선 가장 중앙에 있는 연못인 거울못과 그 위에 떠 있는 청자정이 있다. 이곳은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기 좋은 포토스팟으로 유명하다. 지하철역에서 바로 나오면 보이는 공원은 박물관 오솔길이다. 이곳은 연못과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조용하게 산책하기 좋다. 야외정원은 산책하기 좋

을 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많다. 서울 옛 보신각종도 볼 수 있고 승탑과 탑비, 전통마당과 미르 폭포 등의 명소 서울 주변에서 보기 못하는 풍경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곳곳에 작은 서가가 있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렇게 천천히 국립중앙박물관을 즐기다가 배가 고파지면 편의점, 카페, 식당 등도 있으니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다. 전시관 근처의 계단을 올라가면 남산타워가 하늘에 보이는 탁 트인 풍경도 볼 수 있다. 피서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나 페스티벌 같은 놀 수 있는 곳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여름은 조금은 색다르게 박물관에서 보내는 것은 어떨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자연풍을 둘 다 즐길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여름을 보람차게 보내보자.

꽃 향 디퓨저가 아닌 진짜 '꽃' 향을 맡고 싶다면 서울식물원

도심 생활을 하고 있는 이라면 한 번쯤은 시골의 자연경관과 쾌적함을 그리워할 것이다. 그러나 갑갑하고 건물들로 막힌 서울에서 속이 뻥뻥한 자연은 찾기 힘든 노릇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휴식이 필요할 때, 일상에 지칠 때 종종 식물원을 방문해 여유를 되찾곤 한다.

오늘 소개할 서울식물원은 지하철(9호선, 공평철도-마곡나루역/5호선-마곡역)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곡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식물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돼 있다. 세계 12개 도시 식물원과 식물 문화를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서울식물원은 도시의 생태 감수성을 높임과 동시에 도시 자연생태계 보존, 회복이라는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서울식물원으로 떠나보자. 서울식물원은 크게 4가지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서울식물원의 입구이자 방문자를 안내하는 '열린숲'이다. 서울식물원의 각종 정보



와 이용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나무, 밤나무, 단풍나무 등 나무 그늘이 시원하게 내려앉은 잔디마당이 있어 쾌적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다음은 한국 자생식물로 전공정원을 재현한 '주제원'이다. 주제원은 3가지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국의 자연과 정원문화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주제정원, 지중해와 열대기후 환경을 바탕으로 독특한 식물문화를 전시할 수 있는 온실,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마곡문화관이다. 주제원은 한국 정원 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국의 식물과 식물 문화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세계 12개 도시 정원을 관람할 수 있다. '호수원'은 호수 주변으로 산책길과 수변 관찰 데크가 조성된 공간이다. 호수 계단에 앉아 식물원을 조망하거나 습지식물과 텃새를 관찰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자 생태교육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방으로 시야가 트여 있어 시민들에

게 해방감과 여유를 전해주기도 한다. 특히 호수를 가로지르는 보행교를 걷다 보면 습지식물 주변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기에 아이들의 관심과 호응이 뜨겁다. 마지막으로 '습지원'은 서울식물원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물이 만나는 경이로운 생태 경관을 관람할 수 있다. 자연 천이가 보존돼 생물종 다양성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습지의 동식물과 한강에 서식하는 새를 관찰할 수 있어 생태학습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별한 점으로는 한강 나들목과 연결돼 있어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편리하게 서울식물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 이외

에도 식물문화센터, 식물판매센터, 식물전문도서관, 식물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이 설치돼 생태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서울식물원은 시민에게 도시에서 접하기 어려운 자연환경과 도시 생활의 정신적 도피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번식이 어려운 식물종 증식, 식물유전자원 확보 및 교배를 통한 품종 개발 등 식물연구보전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빌딩 숲이 아닌 진짜 '숲'을 마주하고 싶다면, 꽃 향 디퓨저가 아닌 진짜 '꽃' 향을 맡고 싶다면 서울식물원에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

시원한 강바람과 맥주를 즐기다 세빛섬 비어가든

세빛섬은 2006년 서울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만들어진 장소로, 한강 반포대교 남단 물 위에 꽃을 형상화해 조성한 인공섬이다. 세계 최초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축물로 초기에는 세빛동동섬으로 한강 위에 떠 있는 복합문

화공간임을 강조했지만, 현재는 세빛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세빛섬이라는 이름은 한강을 아름답게 밝혀줄 세 개의 빛나는 섬이라든가, 뜻으로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처럼 세 섬이 조화를 이뤄 '서울을 빛내라'라는 기원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세빛섬은 채빛섬, 가빛섬, 술빛섬의 세 섬과 대형 전망관이 있는 야외무대인 예빛섬으로 구성돼 있다. 각 섬에는 문화 공연을 위한 장소뿐 아니라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입점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꼭 내부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도 외부 전망 공간은 운영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세빛 비어 가든은 세빛섬에서 매일 여름 진행되는 한강의 풍경과 시원한 수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행사이다. 야외가든에는 풍경을 더욱 편안하게 즐기도록 잔디와 돛자리, 여러 벤치가 준비돼 있고 다양한 조명과 소품으로 꾸며져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밀맥주, 흑맥주, 예일 등 다양한 종류의 맥주들을 마셔 볼 수 있었으며 곁들여 팔고 있는 소시지구이와 닭꼬치 구이, 부챗살 구이와의 페어링도 훌륭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한강의 모습이었다. 해가 저물어갈 때의 노을과 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강 물결들을 볼 수 있었고, 밤이 되자 하나 둘씩 빛을 밝히는 세빛섬의 조명들과 어우러지는 강 너머 도시의 야경은 탄성을 자아냈다. 반포 한강공원과도 가까워 연인이나 친구와 가볍게 산책 나와서 야경을 바라보며 맥주 한잔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워 보는 것은 어떨까. 여름밤의 시간을 만끽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다. 세빛 비어 가든은 채빛섬 뒤쪽 세빛 야외가든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번 연도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된다. 우천 시에는 별도 안내 없이 운영되지 않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세빛섬은 비어가든 뿐만 아니라 봄꽃 축제, 겨울 빛 축제와 같은 다양한 계절별 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 아트 갤러리인 예빛에서는 상시 무료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초대형 전망관을 이용한 영화제를 진행하기도 한다. 화 속에서 우리는 너무 과열되어 살지 않는 것일까. 여름밤의 시간을 만끽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다. 세빛 비어 가든은 채빛섬 뒤쪽 세빛 야외가든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보트를 운전하면서 물 위의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튜브스터 체험도 진행되고 있으니 더위를 피해 선선한 강바람과 함께 한강의 풍류를 즐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여름은 점점 불쾌한 계절이 되어가고 있다. 매년 경신하는 최고 기온과 높은 습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여름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올해 여름을 되짚어볼 때 더운 여름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 연인과 사랑스러운 저녁의 맥주 한잔, 새로운 깨

달음을 얻은 박물관의 전시품, 폭포 속에서 자신을 탐구하는 고요, 생기 가득한 싱그러움과 같은 신난 어린 계절로 추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신문사 취재부는 서울 곳곳,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을 취재해 봤다. 이 밖에도 도심 속 피서지는 다양하게 존재한

다. 요즈음 같은 날씨에 집 밖을 나선다는 것은 상당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저 보내기엔 여름이라는 계절은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소개된 장소들 이외에도 미술관이나 전시회, 실내 체육시설 등 관심있는 활동들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만끽하기를 바란다.

옛말 중에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다. 열은 열로써 다스린다는 뜻으로 더운 여름을 뜨거운 음식 등을 먹음으로써 이겨내는 문화를 뜻한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너무 과열되어 살지 않는 것일까. 뜨거운 것은 차갑게 식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우리도 여유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현장르포에서 다룬 장소들은 모두 작업하는 태도와 시험으로 지친 마음에 다독여줄 것이다. 이를 계기로 몸과 마음을 식히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취재부 (skpress01@naver.com)

주간칼럼



SNS광고마케터와 라이브커머스 인력양성

주간 방미영 교수

지난 3월, 수천 종의 각종 자격서 및 실용서를 출간하고 있는 예문사에서 디지털마케터를 위한 신간을 저술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인터넷시대를 통해 소비시장이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어 필자 또한 디지털마케팅을 위한 SNS마케터를 양성하기 위해 준비해오던 터라 담당자들과 미팅을 곧바로 진행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 월간 이용자 수는 페이스북이 27억 명, 유튜브가 22억 명, 왓츠앱이 20억 명, 인스타그램이 12억 명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10대와 20대, 30대 모두 인스타그램이 가장 많고, 40대, 50대는 밴드로 조사되었으며, 순 방문 수는 유튜브(3천 766만 명), 밴드(1천 965만 명), 인스타그램(1천 885만

명), 페이스북(1천 371만 명), 카카오톡(919만 명), 트위터(517만 명), 틱톡(301만 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DMC미디어에서 발표한 2021 소셜미디어 시장 및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89.3%, 53.6%인 세계 평균치 보다 약 1.7배 높았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99%)에 이어 2위이며, 대만 88.1%, 네덜란드 88%, 말레이시아 86%, 홍콩 85.6%, 캐나다 84.9%, 싱가포르 84.4%, 덴마크 83.6%, 스웨덴 82.1% 순이다. 일본, 미국, 중국은 각각 74.3%, 72.3%, 64.6% 순으로 조사되었다.

소셜미디어 이용률의 빠른 증가는 소비시장 자체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거 이동시켰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온라인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거론한 생산자이며, 소비자인 '프로슈머'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온라인 시장에서 참여형 프로슈머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들이 프로슈머로 활동하면서 디지털 마켓은 독자적인 콘텐츠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소비시장의 활성화로 기업들은 디지털 마켓의 트렌드를 이끄는 MZ세대 SNS마케터들의 영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소비시장을 이끄는 플랫폼 마케팅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MZ세대 SNS마케터들이 태부족한 상태다. 필자가 『SNS광고마케터 초단기

완성』을 집필하게 된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SNS광고마케터는 트렌드 및 콘텐츠를 읽는 기술과 콘텐츠를 창조하는 창의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메타,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의 SNS 산업의 특징과 특색을 이해해야 한다.

필자는 『SNS광고마케터 초단기 완성』에서 온라인 마케팅과 SNS 마케팅 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와 키워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본 지식을 탄탄하게 갖추어 SNS 광고마케터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이로써 SNS광고마케터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 및 진로에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집필 중인 『검색광고마케터 초단기완성』이 연내에 출

간되면 SNS광고마케터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2학기에는 공영 흡수평과 협업하여 라이브커머스 제작인력 양성을 위한 온라인 전공역량 강화를 위해 한층 신나는 수업을 준비 중이다. 라이브커머스 제작인력 양성 또한 필자가 융합대학을 통해 실행하고자 한 현장실무 교육이었는데, 비로소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교수도 꿈이 있어야 한다. 필자의 꿈은 미래세대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길을 내고, 다리를 놓는 기반 공사를 통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번 여름 방학은 SNS광고마케터와 라이브커머스 인력양성을 위한 로드맵 구축으로 신나는 방학이 될 것 같다.

| 기자의 눈 |

다양성의 세계에서 산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10억 명이 넘는 이용자가 매일같이 접속하는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는 사용자가 프로필에 자신의 성별 혹은 성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무려 60개나 된다. 동성애자 여성과 남성, 무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 등 다양한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이 60개나 되는 성향들을 'LGBTQIA+'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LGBTQIA란 무엇일까? L는 레즈비언의 약자로서, 동성애자 여성을 뜻한다. G는 게이의 약자로서 동성애자 남성을 의미하며, B는 바이섹슈얼의 앞 글자를 따서 양성애자를 나타내고 있다. T는 트랜스젠더, Q는 퀴어, I는 인터섹슈얼(간성), A는 에이섹슈얼 즉, 무성애자를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LGBTQIA는 성 소수자들이라고 통용되고 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는 미국에서는 성소수자의 권리가 2003년 6월 26일 이후 전국적으로 합법화됐

다. 또한 2015년도에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이로 인해 거의 모든 주요 도시의 성소수자 지역에서는 방문객에게 문을 활짝 열게 됐으며 오늘날 미국은 성 소수자 관광지라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가 자리를 잡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카스트로 지구에서는 거리마다 무지개 깃발이 가득한 상징과 서점, 비아 레스토랑을 볼 수 있다. 동쪽의 레즈비언 커뮤니티인 미션 지구에서는 거리 예술과 타코 식당, 커피숍들이 즐비해 있다.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는 이스트 레이크뷰의 북적이는 게이 타운인 보이스타운과 앤더스빌의 비교적 차분한 레즈비언 타운인 걸즈타운이 있다. 미국은 이처럼 성소수자들이 모여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

한국에서는 퀴어문화축제라는 성소수자의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가 2000년도부터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날이면 여러 가지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2018년 9월 8일, 인천에서 처음 열린 퀴어축제에서 반대집회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불법촬영, 폭언, 성희롱을 당했다는 참가자들이 이어졌다. 또한 2019년도에 열린 사상 최대 규모의 퀴어축제 당일, 기독교 단체들이 시청광장 인근에서 1만여 명 정도 모여 맞불집회를 열 계획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대학생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시작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석당, 커피숍들이 즐비해 있다.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는 이스트 레이크뷰의 북적이는 게이 타운인 보이스타운과 앤더스빌의 비교적 차분한 레즈비언 타운인 걸즈타운이 있다. 미국은 이처럼 성소수자들이 모여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

한국에서는 퀴어문화축제라는 성소수자의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가 2000년도부터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날이면 여러 가지

제가 수술 없이도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원의 판단이 개별적인 차원이지만 있었다는 것이다.

필자 또한 확실히 한국에서도 과거와 달리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발전했다는 의견이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미디어에서도 심심찮게 성소수자들이 나오는 영상물을 볼 수 있다. 2020년 TvN에서 방영된 '가족 최대 규모의 퀴어축제 당일, 기독교 단체들이 시청광장 인근에서 1만여 명 정도 모여 맞불집회를 열 계획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대학생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시작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석당, 커피숍들이 즐비해 있다.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는 이스트 레이크뷰의 북적이는 게이 타운인 보이스타운과 앤더스빌의 비교적 차분한 레즈비언 타운인 걸즈타운이 있다. 미국은 이처럼 성소수자들이 모여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

츠 산업의 퍼스널 브랜드가 된 것이다. 이런 퍼스널 브랜딩 사례는 마동석 이외에도 세계적인 축구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리오넬 메시와 손흥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9년 메시는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 '메시'로 사업을 론칭했고, 손흥민도 얼마 전 성 'SON'을 거꾸로 표기하고 등 번호 '7'을 합친 'NOS7' 패션 브랜드를 론칭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메시와 손흥민이 자신을 브랜드화한 '퍼스널 브랜딩'인 것이다.

퍼스널 브랜딩은 유명인들의 사업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

대한민국의 법률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 2조 3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상 법적 또는 행정적 실제력이 없는 시정 요구만이 가능해 실질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2006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연합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2007년과 2010년, 2013년 입법 시도 모두 실패했다. 한국은 아직 성 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확실한 법안조차 제대로 발의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21세기가 다양성의 세기라고 생각한다. 그 다양성은 모두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양한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란다.

김지수 기자

(jeesu246@skuniv.ac.kr)

사설

서글픈 일상 회복...

대학가에 자리잡은 '코로나 블랙'

올해 1학기부터 다수의 대학이 수업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했다.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대학은 대면이나 비대면이냐를 열띤 논쟁을 벌인 시간을 지나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바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른바 '코로나 학번' 때문이다. 코로나 학번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대학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학번들을 이른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에 입학한 20학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으로 혼란스러웠던 21학번, 그리고 22학번까지 모두 코로나 학번이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엔데믹(풍토병화)로 전환됨에 따라 차차 대학교 강의가 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이러한 코로나 학번들은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등교를 시작하지만 학교 생활에 열심히 참여하며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한편, 입학한 지 3년이 되었음에도 학교를 처음 가보느라 강의실이 어는 건물인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다량 있었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학교에서 길을 물어봐도 자신도 학교에 온 것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는 경험담을 내놓기도 했다. 캠퍼스에서 휴대폰으로 길 찾기를 하며 이리저리 둘러보는 모습은 더 이상 새내기들이 막 대학에 들어온 전형적인 캠퍼스 풍경이 아니었다. 심지어 코로나 학번들은 선, 후배는 물론 어머니와 자신의 동기 얼굴까지 모르는 경우도 수두룩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대면 활동이 감소하면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이는 대학생은 물론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5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제17차(2021)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을, 외로움, 범불안장애 경험률이 2020년에 비해 남녀 학생 모두 증가했다. 고립감과 우울감, 불안증세에서 멈추지 않고 자살까지 생각해보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지친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은 '심리방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생들의 심리방역을 위해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서경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는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교내 복악관 앞에서 '찾아가는 일상회복' 마음건강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두 시간 동안 부스에서 진행된 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하고 피폐해진 마음을 돌아보고 건강한 캠퍼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통해 마음을 점검,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삼육대 학생상담센터와 경희대 심리상담센터는 교내에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각 대학은 학생상담센터를 통해 코로나 영향으로 타락된 마음의 감기가 병으로 번지지 않도록 도우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캠퍼스의 단절과 낯선 대학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 기자의 눈 |

마동석의 주먹으로 보는 '퍼스널 브랜딩'

지난 6월 11일, 마동석·손석구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2'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이며 영화가 개봉한 지 25일 만에 대기록을 세웠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발효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중 이용시설인 영화관에도 적용되면서 큰 흥행을 기대하긴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이 흐름에 맞춰 '범죄도시2'가 천만 관객을 돌파해 침체한 영화계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범죄도시2'의 흥행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주연, 조연 가릴 것 없이 각자 뚜렷한 개

성을 보여줬고 마동석·손석구 등의 배우들이 보여준 통쾌한 액션은 코로나19로 가라앉은 사회 분위기를 시원하게 깨뜨렸다. 또한 배우 손석구가 최근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큰 인기를 끌어 유입 효과도 톡톡히 봤다. '범죄도시2'는 전작에 견주어 탄탄한 스토리 라인으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범죄도시2'도 마동석의 주먹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MCU(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마블사의 영화 세계관을 의미하는

말인데, 마블을 마동석으로 바꿔 표현한 것이다. 사실 마동석의 MCU 코로나19로 가라앉은 사회 분위기를 시원하게 깨뜨렸다. 또한 배우 손석구가 최근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큰 인기를 끌어 유입 효과도 톡톡히 봤다. '범죄도시2'는 전작에 견주어 탄탄한 스토리 라인으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범죄도시2'도 마동석의 주먹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MCU(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마블사의 영화 세계관을 의미하는 말인데, 마블을 마동석으로 바꿔 표현한 것이다. 사실 마동석의 MCU 코로나19로 가라앉은 사회 분위기를 시원하게 깨뜨렸다. 또한 배우 손석구가 최근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큰 인기를 끌어 유입 효과도 톡톡히 봤다. '범죄도시2'는 전작에 견주어 탄탄한 스토리 라인으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범죄도시2'도 마동석의 주먹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MCU(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마블사의 영화 세계관을 의미하는 의미인 것이다.

드라마에서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도망이지 않냐며 고민하는 여자 주인공에게 남자 주인공은 "진보적이지 못한 선택이라도 괜찮잖아.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쳤다고 해도 어떻게든 잘 넘겨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라는 이야기를 해 준다. 주인공의 대사를 통해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수많은 책임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 1순위는라는 것을 잊고만 살아가는 것 같다. 삼십육계 중생량이라고 널리 알려진, 병법 삼십육계에 소개

된 삼십육계주위상책(三十六計走爲上策)은 36가지의 병법 중 도망치는 것을 제일 좋은 수로 여긴다는 뜻이다. 불리할 때는 적절히 퇴각해 다음을 도모해야 한다. 수많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도망치는 것을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나 명심하길, 인간은 죽음에서 도망쳐 왔지, 죽음으로 도망쳐 가지는 않았다. 도망이라는 수단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여야 하며, 자신이 도망치고 있는 주제와 도망치면서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는 자각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자기가 싸울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원준 수습기자

(2022464017@skuniv.ac.kr)

| 수습의 눈 |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문장은 일본에서 제작한 동명의 드라마 제목이다. 이는 'Szegyen a futas, de hasznos'라는 헝가리 속담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헝가리 속담을 직역하자면 '자신이 싸울 장소를 골라라'라는 뜻이다. 토끼와 거북이가 육지에서 경주한다면 토끼가 더 빠르겠지만 물에서 경주한다면 거북이가 월등히 더 빠를 것이기에, 싸우는 장소를 회피하는 것은 부끄럽겠지만 도망쳐서 자신에게 더욱 유리한 선택을 하라는 의미로 나온 제목이다.

위이다. 그러나 옳지 않은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타 계획보다 연약한 인간은 예전부터 거대한 맹수로부터, 아주 작은 해충으로부터, 심지어 같은 종족인 인간으로부터 도망쳐왔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한 현대에는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상황은 극히 줄어들었다. 그래서인지 수만 년 동안 유전자에 각인된 도망치고 싶다는 속삭임을 열정이나 끈기의 부족으로 치부하며 무시한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욕구는 생존의 제1법칙이다. 다시 말해 도망치고 싶다는 말은 살고 싶다는

만/파/식/적

물이 부족하면 사서 쓰라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점차 나아짐에 따라 다양한 페스티벌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욕구를 분출하고, 무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즐기고 싶은 바람이 모인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바람을 이뤄 주듯 '사이의 폭탄', 'Water Bomb' 등은 물을 소재로 개최되는 행사들이다. 코로나도 나아졌겠다. 청춘을 제대로 즐겨 보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나 그 이면에는 환경 이슈가 도사리고 있다. 이에 이번 기사를 통해 문제를 짚어보려 한다.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2리 주민들은 물을 아껴 쓰느라 비상이 걸렸다. 여섯 명이 거주 중인 김복수(61)씨네 댁은 빨래도 1주 혹은 2주에 한 번씩 모아서 한다. 평소엔 양치만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인근 도시의 아들 집에서 머리를 감는 등 '사위 워장'을 떠나는 주민들도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장 홍씨는 "원래 이맘때면 옥수수가 성인 남자 허리만큼은 자라야 하는데 무릎까지밖에 안 온다"며 "사람 먹을 물도 부족해 밭에 주는 물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곡2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급수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작년 겨울부터 최근까지 가뭄이 이어지면서 현재 전국 13개 시·군·구에 있는 55개 지역에서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각 지역에 사는 사람만 약 1만2000명에 이른다. 요근래 이어진 장마로 인해 어느 정도 해소되긴 했으나,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199.7mm로 평년의 57.3% 수준이다.(조선일보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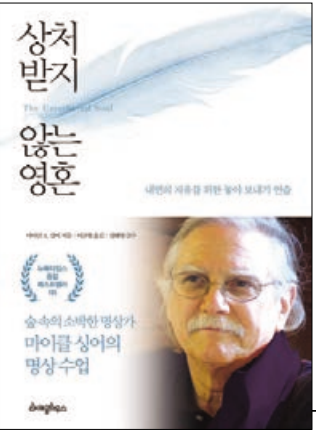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화차 당 식수 300톤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싸이의 흠뻑쇼는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MBN의 계산에 따르면, 식수 300톤은 일반 가정집에서 주로 소비하는 20kg 용량의 쌀 45포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워터 페스티벌은 가뭄 문제만을 초래하지 않는다. 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가 젖을 경우 감염에 좀 더 취약해진다"며 "행사가 가급적 물을 뿌리는 형태로는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논란이 일자 흠뻑쇼 측에서는 예정대로 콘서트를 진행하되 현장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가뭄으로 인해 물이 필요하다면 흠뻑쇼처럼 돈을 내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는 물질만능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의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물 부족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세차나 관상 용 잔디 급수 등을 규제하며 물 낭비에 벌금을 물리기도 하는 등 물을 아끼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폭염과 가뭄이 심각한 올해, 물 부족은 전 세계의 난제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환경 문제다.

페스티벌은 모두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물 부족 문제로는 코로나의 확산 문제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은 행사들이다. 즐길 때는 즐기되,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해 한 번쯤이라도 의식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이달의 책

진정한 자유는 내면으로부터 - 상처받지 않는 영혼 마이클 싱어



의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게 한다. 책의 저자 마이클 싱어는 대중 앞에 나서기를 꺼려 얼굴 없는 저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다 2012년 미국의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의 부탁으로 <슈퍼 소울 선데이>에 출연했다. 마음의 곤경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알려주는 그의 강연은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방송 직후, 책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이후 한국을 포함한 십여 개 국의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 소개되었다. 이 책은 서양의 심리학을 통해 마음을 해부하고, 동서양의 영적 전통과 지혜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삶을 놓고 벌이는 마음의 온갖 소동들을 적절한 비유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며, 그 곤경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방법을 일상의 언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심리학 분야이지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책은 독자들에게 '받아들임'과 '내려놓음'을 말한다. 스트레스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삶의 사건들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저항이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다양하고 많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 경험한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감정과 저항을 내려놓음으로써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경쟁하고 투쟁하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의 사회와는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부딪히고, 저항하며 해결하며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문제를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내려놓으며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방법은 한국의 사회와 정서에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려놓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버티면 버러진다"는 말이 있다. 사회의 흐름에 따라, 주변이 제시하는 목표에 닿기 위해 문제에 저항하며 버티는 삶을 살아온 당신, 이 책을 읽고 삶의 흐름에 따라,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여 자유롭게 평화로운 내면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면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바탕으로 본인이 원하는 행복에 가까워졌으면 한다.

박세훈 수습기자 (gns3978@skuniv.ac.kr)

자유 없는 행복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부분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자유는 행복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자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집중한다. 시간, 돈, 직업, 인간관계 등이 외부환경에 속한다. 많은 시간과 돈, 좋은 직업과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준다. 하지만 더 많은 자유를 위해 더 좋은 외부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억압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 책은 자유와 행복을 외부의 조건에서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

이달의 전시회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 - Logout



로그아웃 전시는 하나의 물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소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현실 속의 넘쳐나는 수많은 정보들은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다. 로그아웃은 이토록 과잉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심을 선물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다. 이 전시는 잠시 현실이라는 불을 끄고, 오토이나 사진에게 집중하는 마음속의 불을 켜기를 돕는다. 이를 통해 잃어버렸던 감각의 끈을 찾고,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전시의 첫 번째 세션 'Intro'에서는 한 그

루의 나무를 만나볼 수 있다. 하나의 이파리도 없는, 현실 속에 메달라 버린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세션 'Digital World'에서는 0과 1로 둘러싸인 공간을 맞닥뜨리게 된다. 현금 없는 사회 등 인터넷으로 둘러싸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준다. 세 번째 세션 'Logout'에서는 어두운 공간이 펼쳐져 힘든 현실로부터의 로그아웃이 필요한 지금,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끔 한다. 네 번째 세션 'Sense'에서는 내 안에 내재된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 독립된 공간 안에 들어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그니처 향을 도포해 뒀다. 다섯 번째 세션 'Summer: 여름 고요한 바다'에서는 드넓고 적막한 바다가 담긴 영상을 전시해 모래사장에서 잔잔한 파도소리를 들으며 평온함을 느끼도록 한다. 여섯 번째 세션 'Autumn: 흩날리는 갈대밭'에서는 프리저브드 플라워로 연출된 공간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여덟 번째 세션 'Spring:

마침내, 봄'에서는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긴 터널을 지나 맞이한 봄, 추위와 어둠을 뚫고 저마다의 모습으로 만개하는 꽃들의 타임랩스 영상을 바라보며 스스로 성장하고 피어나는 나랑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아홉 번째 세션 'My World'에서는 향, 침, 책, 음, 명, 장, 차, 작의 8가지 코너를 직접 체험하며 나의 내면을 새로운 것들로 다시 채우도록 한다. 마지막 열 번째 세션 'Login'에서는 만개한 꽃밭을 전시해 꽃길만 가득할 앞날을 응원하는 의미를 내포시켰다.

햇살, 소리, 바람, 온도처럼 자연 속에서도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었지만 이들은 오히려 집중력을 높여주고 평온함까지 느끼게 했다. 무더운 날씨와 공부, 업무 등의 일상으로 인해 지친 요즘, 전시를 통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유의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이종은 기자 (20eun00@naver.com)

· 관람기간 : 2021. 12. 21. ~ 2023. 03. 01. · 가격 : 1인 15,000원
· 관람시간 : 평일 10:00~19:00, 주말 및 공휴일 10:00~20:00
· 관람장소 : 독서 미술관(2호선 독성역 3번 출구)

이달의 영화

빌리, 춤을 출 때 어떤 기분이니? - 빌리 엘리어트 (2001)



꿈을 포기할지 말지 고민하는 학우가 있다면 영화 <빌리 엘리어트>를 추천한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돌아가신 빌리는 영국 탄광촌 더럼에서 사는 11살 소년이다. 그는 아버지의 강요로 매일 복싱을 배우러 가다가 우연히 발레 수업을 보게 됐고 발레 교사 윌킨슨 씨에게 발레를 배우게 된다. 빌리가 어렸을 때는 마거릿 대처 총리가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을 펼쳤던 1980년대였다. 이에 석탄노조는 장기파업으로 대항했고 아버지와 형도 동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윌킨슨 씨는 빌리가 로열 발레 스쿨의 오디션을 볼 수 있도록 빌리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빌리가 그동안 발레 연습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와 형은 발레는 여자들만 하는 것이라며 극심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빌리는 윌킨슨 선생님을 따라 꾸준히 노력했고 결국 아버지도 파업을 포기하거나 아내의 반지를 파는 등 빌리의 꿈을 도와준다. 중간에 집을 떠나 먼 곳

에 가는 것이 무서워 포기할 뻔도 했지만 결국 빌리는 로열 발레 스쿨의 오디션에 합격하게 되고 먼 훗날 로열 발레단의 유명 발레리노가 된다.

이 영화는 주인공 빌리가 집안 환경과 사회적 시선에도 끝까지 노력해서 자신의 꿈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그 당시에 발레는 여자들만 한다는 편견이 가득했다. 그러나 빌리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빌리가 살았던 1980년대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비교해보자, 현재는 직업에 남녀 구분도 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은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과 같다. <빌리 엘리어트>를 보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마음을 되잡아 보는 것은 어떨까.

오지원 기자 (greo0101@naver.com)

모두 한 번쯤 좋아하는 일을 어떤 이유에서든 포기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누군가의 반대였을 수도 있고 뜻밖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어서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다면 크게 후회할 것이다. 만약 지금

이달의 음악

해방감에서 느끼는 자유

어느덧 기말고사가 끝나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방학이 돌아왔다. 과제, 학업 그리고 시험에 구속됐던 학우들의 답답한 숨통이 트이는 시기가 아닐 수 없다. 학기 중 학우들을 괴롭혔던 여러 고민거리들에서 해방돼, 하고 싶은대로 맘껏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 자유의 몸이 된 기분을 만끽하며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도 보자. 이번 호에서는 학기 중 여러 압박에서 해방된 학우들을 위해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노래를 선정해 봤다.

♪ 〈안녕〉 - 조이

"외로운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내 마음속의 눈물들도 이제 안녕
어제의 너는 바람을 타고 멀리
후회도 없이 미련 없이 날아가"



이 노래 속 화자는 슬펐던 과거를 내려놓고 비로소 슬픈 감정에 벗어난다. 희망찬 멜로디와 가사로, 슬픔에서 벗어난 화자의 밝은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 무언가 얽매었던 것을 풀었을 때, 우리는 후련한 마음으로 자유로워진 자신을 느끼기도 한다. 이 노래 속 화자 또한 슬픔을 묻고 일상 속에서 새로운 오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감정적으로 힘들고 지친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이 노래 속 화자처럼 스스로를 다독여주며 자유로움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 〈Boogie up〉 - 우주소녀

"오늘이 마치 막 두근두근대
기분이 좋아 이 열기 뽀짝
막 뜨거뜨거운데
춤춰 볼까 간만에
머리 좀 풀까 풀나게"



필자는 자유로운 기분일 땐 무엇이든 다 해도 될 것 같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곤 한다. 이 노래 가사 또한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 시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당신이 현재 자유를 느끼는 상태라면, 이 노래의 가사가 당신의 자유로움을 더 부각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빙고(아싸)〉 - 거북이

"타질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틀에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 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리러 다 나 바라는데로"



자유로움을 나타낼 때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서 여행을 떠날 수 있다. 할 일의 구속 없이 오롯이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일 중에는 여행이 포함돼 있다. 당신이 만약 어딘가로 떠날 계획이 있다면 이 노래를 들으며 가길 추천한다. 긍정적인 가사와 신나는 멜로디가 당신의 여행길을 더욱 즐겁게 해 줄 거라 단언할 수 있다.

김지수 기자 (jeesu246@skuniv.ac.kr)

이달의 장소

무더운 여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 영종도



로 사랑받고 있다. 섬의 남서쪽에 위치한 마시안 해변은 섬의 대표적인 사진 명소다. 해변 가까이 인 천국제공항이 있어 하늘 위를 오가는 비행기와 바닷가가 어우러진 풍경은 이색적인 경관을 자아낸다. 드넓게 펼쳐진 푸른 빛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했던 가슴이 뻥 풀리는 듯하다.

해변의 시작점을 기점으로 준비하게 늘어난 카페거리는 마시안 해변의 필수 방문 코스 중 하나다. 감성이 가득히 들어찬 카페부터, 산해진미를 맛볼 수 있는 맛집까지 취향에 따라 방문하기 추천한다. 맛있는 먹거리와 함께 즐기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마치 낙원에 방문한 듯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영종도에는 다양한 놀거리와 체험거리 또한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대표적으로는

갯벌 체험이 있다. 방문하기 전 마시안 갯벌 체험 대표 홈페이지를 방문해 필요한 준비물과 주의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갯벌 체험의 기본은 물때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체험거리로는 레일바이크가 있다. 해안가에 펼쳐진 5.6km의 선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아름다운 영종도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이외에도 '바다 위의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인천대교와 율미도 또한 감상할 수 있다.

당일치기 여행으로도 손색이 없는 영종도. 다가올 여름 영종도에 방문하여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는 것은 어떨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뜨거운 햇빛과 청량한 하늘이 공존하는 계절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피서지를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인천 영종도를 주목해보자. 영종도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이다. 서울과도 인접해있어 부담 없이 방문하기에 적합하다. 훌륭한 접근성을 자랑하기 때문일까? 영종도는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이 찾는 피서지

이달의 스포츠

K리그 최다 우승 구단과 팬들 사이의 갈등

2022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 팬들이 김상식 감독 퇴진과 구단 프런트의 혁신을 외치며 트럭 시위를 시작했다. 구단의 답답한 경기력, 팬들과의 소통 부재 등으로 불만이 쌓여 전북현대 팬카페 '에버그린'에서 약 200여 명의 팬들이 650만원의 거액을 모아 트럭을 직접 선의해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나흘간 시위가 이어졌다.

전북현대는 K리그 운영비 1위인 구단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연패를 달성했으며 많은 선수들이 국가대표에 선발된다. 그러나 최근

한 경기에 유효슈팅이 단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임과 동시에 현재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구단에서는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팬들은 이적시장에서 거액을 투자했음에도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감독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전북현대는 과거 최강희 감독 시절부터 설세없이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하여 시원시원한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희열감을 주었다. 그러나 김상식 감독이 2021년 취임 된 이후 반복

되는 답답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며 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21년부터 김상식 감독의 경기내용에 관해 팬들의 아쉬움은 계속되었지만 갑자기 팬들이 트럭 시위를 하게 된 이유는 구단의 소통 거부이다. 최근 팬들이 답답한 마음에 '에버그린' 홈페이지를 통해 구단과 간담회를 만들어 소통하자는 의견을 모아 구단에 요청했다. 그러나 구단에서는 전북현대의 공식 서포터즈인 'M.G.B'만 소통할 것이며 구단과 연대를 맺지 않은 비공식 서포터즈는 소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팬들은 구단이 팬들 사이에 순위

를 매기는 것과 대표이사나 감독이 아닌 직원만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식의 행정 처리에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김상식 감독에 대한 평가는 전북현대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김상식 감독은 과거 구단의 창단 첫 우승을 안겨준 역사적인 선수였고 경기 내용은 좋지 않더라도 결과는 꾸준히 가져오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 결과마저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 무조건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닌 재밌는 경기를 보고싶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경기장에서도 팬들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 5월 28

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제 주주의 홈 경기에서 0대2로 패한 후, '무능력 김상식 아웃'이라는 걸개를 소수가 들었는데 이에 불편해하는 팬들과 말다툼이 있었다. 구단이 팬들과 소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팬들 사이의 감정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

타 구단의 팬들은 전북현대 팬들의 트럭시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물론 김상식 감독이 감독으로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전북현대의 성적이 낮아지기 때문이겠지만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팬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북현대가 리그 3위, FA컵(대한국 축구 구단끼리 경쟁하는 국내 대회) 8강 진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아시아 축구 구단끼리 경쟁하는 국제 대회) 16강 진출 등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어 감독을 경질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내는 타 구단의 팬들도 있다.

이렇게 전북현대 구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먼저 전북현대 구단은 모든 팬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 없으며 의견을 통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최준서 기자 (cjunseo3214@naver.com)